

1833-9030 금연상담전화

전주매일

세인 신경외과 의원

내년 운영 신규 혁신학교 7곳 선정

일제 잔재 ‘헌병’ 없어진다

도교육청, ‘공모’ 전주동북초 등 4곳 · ‘혁신벨트 지정형’ 완주소양중 등 3곳 ‘혁신+학교’ 신흥고 등 2곳 추가 지정...

전북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운영될 신규 혁신학교 7교를 선정 · 발표했다. 또 혁신+학교 2교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미 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성된 간 학교 혁신 철학의 공유가 활발하며 교육과정 달아내기 등 혁신학교의 기반이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고와 군산회현초 2곳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는 내년부터 8개로 늘어나게 된다.



“새 보금자리가 생겼어요” 12일 전주시 전주동물원이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구조된 유라시안 수달 2마리의 입식을 실시한 가운데 우수(2살, 암컷)와 달달(4살, 암컷)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신나게 뛰놀고 있다.

전북 동부권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도 “중국발 스모그 유입 등으로 오늘도 ‘나쁨’ 수준 부득이한 야외활동시 마스크 · 보호안경 등 착용해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9시부터 전주, 익산을 시작으로, 12일 임실, 순창, 진안, 무주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익산시만 12일 오전 5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 황사마스크 착용 등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 해부터 달라진 정책 중 하나로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전북 단일권역에서 시군 권역으로 세분화 되고 7월부터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90→75㎍/㎥) 및 해제기준(50→35㎍/㎥)이 강화되면서 도내 대부분 지역은 초미세먼지 발령 횟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와 노약자, 호흡기 · 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하므로, 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외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야외 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면서 차량운행도 자제할 것을 전했다.

새만금 개발 혁신과제 해결 나선다

민주당, 오늘 새만금 방문... 전북 재생에너지 기업 간담회

새만금 개발을 위한 혁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현장을 찾는다. 12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당 중앙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13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현장 시찰과 함께 33센터에서 전북지역 재생에너지 기업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과 산업자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만금 개발에 따른 혁신 과제를 위한 내용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제2기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비전을 선포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점검하는 첫

현장 방문지로 새만금을 선택했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새만금 신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을 위한 중앙 정부의 계획과 의지가 민주당 함께 하고 있다”며 “일부 야당이나 보수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점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당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 혁신성장추진 위원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국책사업들의 성공을 위해 오래전 제정된 법규들로 막혀있는 잘못된 규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수험생 이직률 택시 무료 운행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교통약자 수험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직률 택시를 무료로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대입 수능시험 당일 교통정체로 인해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교통약자 수험생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직률센터는 이직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수험생과 수험생을 자녀로 둔 고객을 대상으로 전주 시내권에 한해 15일 오전 6시부터 고사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14일까지 전화(063-271-2727)로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또 시험 당일 오전 교통약자 수능 수험생에게 합격기원 선물을 제공 예정이다. 전성환 이사장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수험생들이 이직률을 이용해 편안히 고사장에 도착하고, 시험도 잘 치러 꼭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국방부, ‘군사경찰’ 명칭으로 변경... 14일 입법예고 정훈 병과 ‘공보정훈’ · 시설 병과는 ‘공병’으로 변경

군이 일제 잔재로 여겨졌던 ‘헌병’ 대신 ‘군사경찰’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군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에 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은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헌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업무의 성격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군사경찰’로 병과를 바꾸기로 했다. 군은 헌병이 일제 강점기 때 헌병대(憲兵隊)를 연상케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병과 명칭을 군경(軍警), 군경찰(軍警察), 경무(警務) 중 하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헌병은 군내 질서 유지와 군기 확립, 범죄 예방, 수사 활동, 교도소 운용, 교통 통제, 포로 관리, 군사 시설과 정부 재산 보호 등 임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본연의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Military Police)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 병과도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

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 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해 · 공군은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도 일반 공병 지원,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 육군은 ‘화학’ 병과를 화학 분야 이외에 현재 관할하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화학생물’ 병과로 바꾸기로 했다.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영역이 인력, 군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 모든 분야로 확대됐고,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문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개발공사는 토지개발 등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임대주택 등 공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여 도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도모합니다.